



삼성전자

- 삼성전자, 90나노 고성능 스마트카드 칩 개발
- 삼성전자, 뉴욕서 스타들과 자선모금 행사
- 삼성전자, 커뮤니아시아 2008에서 'SAMSUNG OMNIA' 공개, 동남아 출시

삼성전자, 90나노 고성능 스마트카드 칩 개발

- EEPROM 탑재한 스마트카드 칩으로는 최초로 90나노 공정 적용
- 보안 기능 강화된 고성능 제품으로 모바일 TV 분야, SIM 카드 등 적극 공략
- 72KB, 144KB, 288KB EEPROM 내장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 구축
- 이달 부터 샘플 공급 시작, 올해 말 양산 예정

※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 : 유럽 방식의 GSM 단말기에 주로 사용되는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

삼성전자가 288KB EEPROM을 내장한 고성능 스마트카드 칩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EEPROM를 탑재한 스마트카드 칩으로는 최초로 90나노 공정을 적용한 것으로, 삼성전

자는 앞선 미세회로 공정 기술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올해 말 양산시 원가 경쟁력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 스마트카드 칩 : CPU,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시스템LSI 반도체로 교통카드, 신용카드, 전자주민카드 등과 GSM/WCDMA 방식 휴대폰의 SIM 카드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어 사용자 인증, 보안, 개인 정보 저장과 같은 핵심기능을 담당함

※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 :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으며, 전원 공급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를 보관하는 非휘발성 메모리의 한 종류

유럽 등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TV 시청을 위해서는 모바일 인증(Mobile ID)과 모바일 결제(Mobile Payment)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원활히 구동하기 위해서는 수십KB의 추가 메모리 용량과 높은 속도의 암호화 프로세서가 요구된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288KB EEPROM과 함께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CPU(16bit CalmRISC™) 기반에 16.5KB SRAM과 384KB ROM을 탑재하여 저장 용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최고의 보안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작업을 더욱 빠르게 하고 변조나 해킹 방지 등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적용된 기술은,

- 미국 상무부에서 공표한 암호화 표준 3-DES (3-Data Encryption Standard)
- 비대칭 방식 암호화 표준인 RSA(Rivest Shamir Adleman)/ECC(Elliptic Curve Crypto)
-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암호화 프로세서 'Tornado'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288KB EEPROM 외에도 72KB/144KB EEPROM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칩도 함께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정칠희 전무는 “앞선

미세화로 공정과 보안 프로세서를 적용한 고성능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행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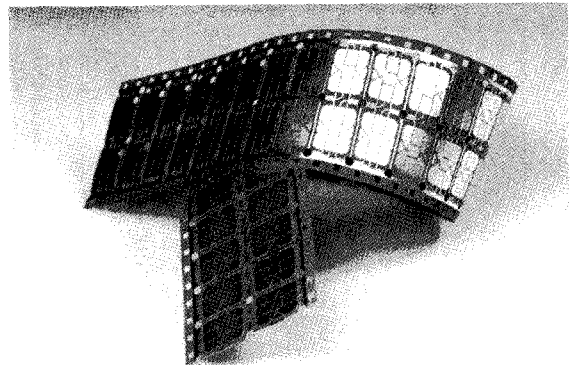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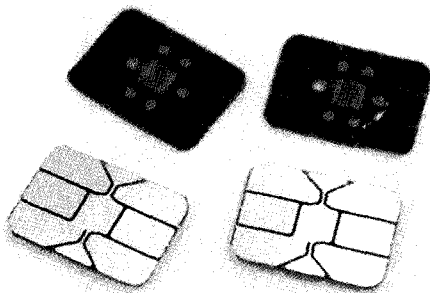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90나노 EEPROM 신제품 3종을 이 달부터 국내외 스마트카드 업체에 샘플로 공급하기 시작해 올해 말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한편 90나노 공정 기술이 적용된 320KB/410KB 플래시메모리 내장형 스마트카드 칩을 올 11월, 12월에 각각 샘플로 공급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스마트카드 칩 개발 이력과 향후 계획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90나노 고성능 스마트카드 칩은 시스템LSI 8대 일류화 제품군에 포함되는 제품으로

- 1기 일류화 5대 제품 : 스마트카드 칩(IC),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MP3P용 IC (미디어플레이어용 IC), 네비게이션용 AP (Application Processor), CMOS 이미지센서



- 2기 일류화 3대 제품 : 디지털TV용(모바일 TV 포함)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 컨트롤러, 차세대 스토리지용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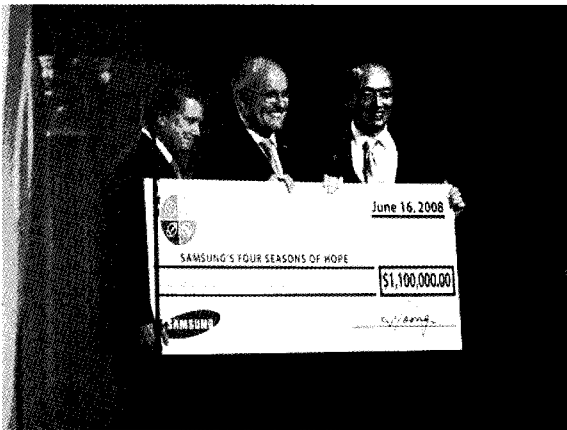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카드 칩 양산에 돌입해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업계 최대 용량인 1GB SIM 카드 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2006년부터 SIM 카드용 스마트카드 칩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콤비 타입 스마트카드 칩 제품 2종에 대해 CC(Common Criteria) 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증명해 왔다.

시장 조사기관 Frost&Sullivan에 따르면 스마트카드 수효는 올해 약 40억7천만 개에서 2012년 약 75억3천만 개 규모로 증가, 연평균 약 17%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SIM 카드용 스마트카드 칩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가트너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출하



량 기준으로 2007년 스마트카드 칩 전체 시장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

삼성전자, 뉴욕서 스타들과 자선모금 행사

- 삼성전자 북미총괄 '희망의 4계절' 자선 행사에 아놀드 파머, 줄리아니 등 세계적 스포츠 스타, 가수, 정치인, 기업인 등 670명 참여
- 하룻밤 만찬행사로 110만불 모금... 지난 7년간 스타들과 미국 거대 유통업체와 함께 1천 2백만불 자선 기금 조성
- 미국내 히스패닉 마케팅 강화위해 멕시코계 가수 카를로스 산타나 참여
- 세계 전자업계 유일의 독창적 행사로 북미시장내 삼성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및 미국 유통업체와 함께 마련한 자선 행사가 미국 주류사회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대표 오동진 사장)은 16일 저녁(미국 현지시간) 뉴욕 맨하탄 월가의 '치프리아니(Cipriani)' 식당에서 「제 7회 삼성 희망의 4계절 연례 자선 기금 모금 행사 (7th Samsung's Four Seasons of Hope Charity Gala Dinne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루디 줄리아니 前뉴욕시장, 골프황제 아놀드 파머, NFL 스타 댄 마리노와 부머 어사이즌,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조 토레 감독, 캐나다의 하키 영웅 웨인 그레츠키 등 북미

스포츠스타들과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시어즈 등 미국 대형 전자 유통업체 및 기업인 등 주요 인사 67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은 지난 '02년부터 미식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 미국내 4대 인기 스포츠의 스타들의 자선재단을 섭외, 베스트바이, 서킷 시티, 시어즈 등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를 연결, '삼성 희망의 4계절' 자선활동 캠페인을 벌여 왔다.

즉 소비자는 미국내 전자 매장에서 삼성제품을 구입하면 이익금의 일정액을 자선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삼성, 스포츠스타, 유통업체, 소비자들이 모두 자선활동에 동참하게 되는 독창적인 자선기금 모금 방식이다.

올해에는 미국 대형 문구회사 스테이플즈(Staples)도 이 자선행사의 파트너로 새로 동참했다.

이 행사는 '03년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물인 클린턴과 줄리아니가 본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여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고, '04년에는 골프의 아놀드 파머, 야구의 조 토레 감독(LA 다저스), 농구스타 매직 존슨, 과거 NFL 스타 부머 어사이즌의 자선재단이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05년에는 캐나다의 하키 스타 웨인 그레츠키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06년에는 NFL의 명 쿼터백 댄 마리노가 새로 파트너로 동참했다.

또한 뉴욕양키스에서 LA 다저스로 소속을 옮긴 조 토레 감독도 여전히 본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미국 방송계의 유명 MC 레지스 필빈

(Regis Philbin) 이외 마이클 스트라한(Michael Strahan), 제이슨 테일러 (Jason Taylor) 등 NFL 출신 유명 스타들이 공동 사회를 진행했고 행사장 참석자들은 유명 스타들의 자선활동이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적게는 2천불에서 많게는 3만불까지 테이블 좌석을 구입, 이 금액은 전액 자선기금으로 활용된다.

행사장 외부에서는 스타들의 소장품에 희망 가격을 매겨 구입하는 경매행사가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날 1부 행사에 이어 2부 공연행사에는 멕시코 출



신의 유명 기타리스트인 카를로스 산타나(Carlos Santana)가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많은 환영을 받았다. 그래미 어워드를 받은 바있는 그는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지가 선정한 2003년도 100대 기타리스트중 15위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밀라그로(Milagro) 자선재단을 운영,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미국인구중 약 15%를 차지하고 2050년경에는 미국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는 미국내 히스패닉인구를 겨냥, 이번 공연에 히스패닉계 유명 가수인 카를로스 산타나를 초청했다.

산타나는 10월중 삼성, 베스트바이와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타나는 “삼성과 같은 일류기업과 오늘밤 자선행사를 실시, 많은 자선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스포츠스타와 유명 인사들이 한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않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크게 도울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세계적인 스타들과 미국 유통업체는 올해 행사에도 삼성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하는 미국의 불우 어린이와 가정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며, 삼성전자는 이날 각계 인사 및 유통 파트너 등으로부터 모금한 110만불을 행사 관련 재단에 전달했다.

삼성은 지난 7년간 1천2백만불이상을 모금, 자선 기금으로 전달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 오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스

타들과 유통업체와 함께 어린이와 가정을 돕는 행사를 하게되어 매우 기쁘다. 삼성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북미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16일 오후 삼성전자 오동진 사장 등 삼성 행사 관계자는 미국의 유명인사가 참여하는 미국의 장외주식시장 ‘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의 폐장식(Closing Bell Ceremony) 행사에 NFL 스타 맨 마리노, 제이슨 테일러와 함께 참석,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NASDAQ의 전광판에 본 행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미국의 불우 청소년 및 가정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삼성과 세계적 스타, 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가는 북미 최대의 자선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전자, 커뮤니아시아 2008에서 ‘SAMSUNG OMNIA’ 공개, 동남아 출시



- 동남아 최대 규모 정보통신 전시회 ‘커뮤니아시아 2008’ 참가

- PC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삼성 옴니아 일 반에 공개

- Soul b, L700 등 다양한 바 타입 프리미엄 모델 선보여

- 와이맥스 시스템을 이용한 VoIP 시연 등 첨단 통신 기술 시연

※ VoIP : 와이맥스 시스템을 통해 음성통화가 가능한 유무선 통합서비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커뮤니아시아(CommunicAsia) 2008'에 420평 방미터(127평)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A Mobile for Every Lifestyle'이란 주제로 하반기 글로벌 전략폰인 'SAMSUNG OMNIA' 등 다양한 첨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커뮤니아시아는 1979년 시작된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1,6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유무선 통신제품, 이동통신 장비, 부품 등을 전시한다.

■ 'SAMSUNG OMNIA' 등 신제품 공개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은 삼성 옴니아. 삼성 옴니아는 윈도우 모바일 OS에 햅틱 UI를 적용한 첨단 폴더치스크린폰으로, MS 문서 편집기능, 풀브라우징 등 강력한 PC 기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오토포커스, 얼굴인식 등 고급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갖춘 500만 화소 카메라와 최대 16GB 내장메모리, GPS, 옵티컬 마우스 등 다양한 첨단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개막 전날인 16일 외신기자 대상 옴니아 발표회를 가졌으며,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유럽 시장에 옴니아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서울의 바 타입 모델인 Soul b(소울비)와 스타일리쉬한 메탈 바디의 바 타입 'L700' 등 바 타입 휴대폰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인다.

■ 모바일 와이맥스 등 차세대 통신 기술 선보여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휴대폰 외에도 모바일 와이맥스 등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와이맥스 시스템을 통해 음성통화가 가능한 VoIP 서비스 등 다양한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시연하고, UMPC, PMP, PDA, PC 카드 등 다양한 와이맥스 단말기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4G 통신 기술인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를 적용한 새로운 와이맥스 기지국 시스템인 'U-RAS Flexible' 과 'U-RAS Light Series3' 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최지성 사장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옴니아를 비롯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U-RAS(Universal Radio Access Station) : 모바일 와이맥스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단말기와 라우터를 연결하는 기지국.